

지자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속출

상반기 사업 물리면서 인력·자재·장비難 '3중고'

장흥군 등 광주·목포서 웃돈 주고 건설 장비 임대

인건비도 치솟아... "5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해야"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

이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전남도와 장흥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예산)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6월 말) 내에 조기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조기집행 구도상 예산 성립 전 설계를 해야하고, 관련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선 사업장으로 몰리다 보니 사업장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자재수급과 인력, 장비난 등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자치단체의 조기 집행을 반기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사업 현장인 장흥군 등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동시에 공사발주가 이뤄지면서 현장인력 인건비는 평소 하루 기준 8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그나

마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포크레인 장비와 레미콘 운반 차량이 부족해 광주나 목포 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련 장비를 웃돈을 주고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제한으로 오후 5시면 현장 일이 끝나는 현실 등으로 지역 내 영세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말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는 이 같은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를 매기는 등 타당행정에만 집착하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서 재정 인센

티브 등을 포상으로 내건 탓에 조기집행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사업부서)와 건설업체들은 기술력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적은 소규모사업은 조기집행과 관계없이 사업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5억원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 국책사업에 한해서만 조기집행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 올 6월 말 기준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 조기집행 평가에서는 1위 해남군, 2위 강진군, 3위 장흥군 등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최근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인 1330억원을 넘어선 1595억원을 집행해 120%에 달하는 조기집행률을 기록,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대덕읍 오성금 앞바다에서 지난해 열린 개막이 갯벌 체험행사서 참가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장흥군 제공>

낚시 보다 짜릿한 손맛 즐기러 오세요

2일 장흥 대덕 오성금 앞바다서 개막이 체험행사

장흥군 앞바다에서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개막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장흥군은 "2일과 9월 16일 오후 1시 대덕읍 오성금 앞바다에서 2016년 개막이 갯벌 체험행사가 열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막이 체험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바다 갯벌 위에 그물을 설치한 후 밀물 때 바닷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그물에 갇히도록 해 잡는 전통고기잡이 법이다.

개막이 체험행사가 열리는 대덕읍 오성금 앞바다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 바다 숲을 이루고 있어 물고기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여름휴가 기간과 추석연휴 기간에 행사가 치러져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이 체험은 썰물시간에 시작되며 그물망에 갇힌 송어, 감성돔, 낙지, 게 등의 다양한 물고기를 맨손이나 물망으로 잡을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간단한 고기잡이 도구들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투망이나 전문어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개막이 체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신리어촌체험마을(010-5448-8868, 010-3522-2569)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초록민음직거래센터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개설



강진군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가 5톤 화물차를 이용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와 판로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31일 강진군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사진>

1인 및 소형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무용 농산물과 강진군의 유명 특산물인 토하젓, 수출호자 파프리카, 세계 주류 품평회에서도 인정받은 전통명주 설성 사또주와 막걸리 등 92개 품목이 판매됐다.

이번 장터에는 aT 임직원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사학연금공단 등 14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도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에는 224농어업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직거래사업단을 두고 오프라인 판매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군민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19일까지 접수

강진군민장학재단이 2016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학재단에서는 성적우수자, 특기자, 복지, 다문화, 한부모가정위탁, 다자녀, 장한학생, 시설보호대상자, 명문대, 귀농인자녀 등 10분야 7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모두 1억2백만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야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접수처는 읍·면사무소다.

신청서류는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총무과 교육단체팀(061-430-3722)으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경찰 기찬랜드 물놀이장 성범죄 예방활동

영암경찰청은 "최근 월출산 기찬랜드 물놀이장을 방문해 여름철 물가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영암경찰청은 물놀이장을 방문해 CC-TV 점검 및 여성 경찰관을 투입, 탈의실과 샤워장 등 물레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또 시설 내 안전요원대상 성범죄 발생시 대처요령과 신속한 신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남은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에서 물가 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객이 많은 시간대별로 경찰관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영암경찰청은 특히 물가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홍보물을 이용해 범죄예방요령 및 신고보상금 제도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살·수·대·칩...6000명 무더위 쫓았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물싸움 퍼레이드 '대박'

외국인 관광객 많아 눈길

장흥군이 개최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주요 행사인 '살수대칩 물싸움 퍼레이드'가 지난해에 이어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물축제 둘째 날인 지난 30일 오후에 열린 살수대칩 퍼레이드에는 6000여명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참가해 무더위를 시원하게 씻어냈다.

살수대칩 물싸움 퍼레이드는 참여형 축제로의 변화를 선언한 물축제의 주요 행사로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시가지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거리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며 물축제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장흥군민회관 앞에서 아이스 버킷 행사와 물풍기 춤으로 출발한 행렬은 장흥읍 중앙로 시가지지를 거쳐 탐진강변 물축제장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바다난 물풍을 채우며 든든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로 지난 30일 장흥읍 일대에서 열린 '살수대칩 물싸움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물싸움 즐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응원군이 됐던 중앙로 상인들도 어김없이 물 호스를 들고나와 참가자들에게 물세례를 퍼부으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이날 살수대칩 퍼레이드에는 지난해 성공 소문을 듣고 외국인도 외지 관광객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살, 수, 대, 칩' 4개의 주제별로 구간을 나눠 물이 가진 생명의 의미를 밝히고 그 근원이 바로 장흥임을 뜻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또 퍼레이드 중간에는 인체에 무해한 색깔과 파우더를 활용해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물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거리 퍼레이드의 종착점인 탐진강 장흥교 아래에서는 더럽혀진 몸을 씻는 씻김과 생명 부활 의식으로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29일 막을 올린 제9회 정남진 물축제는 오는 4일까지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계속된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